



정교회 주보



데카폴리스의 성 그레고리오스 수사

루가 제 8주일

성 필립보 사도,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데살로니카 주교

제 4조, 조과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제 4조 부활 찬양송 / 82, A 214

•주일 입당송 / 14, A 42

•사도 찬양송 / 84, B 262

•성당 찬양송

•성모입당 축일 시기송 / 204, B 237

•사도경 : I고린토 4:9~16 / 봉독서 202

•복음경 : 루가 10:25~37 / 128, B 74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교회의 성인들



데카폴리스의 성 그레고리오스 수사

성 그레고리오스는 9세기에 살았고, 데카폴리스라는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성인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성인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말씀에 따라 아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레고리오스는 수도사가 되었고 도덕적 완성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였습니다. 그를 특히 뛰어나보이게 한 것은 자제력을 키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제력이 정신의 순결과 육체의 도덕적 자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성서의 말씀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

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I고린토9:25) 즉, 투쟁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일에, 심지어 먹고 마시는 일에도 자제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운동선수들은 소멸될 면류관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운동선수인 우리는 불멸의 면류관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고리오스 성인은 수도생활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화를 반대하고 파괴하려는 왕들과의 치열한 투쟁에 참여했습니다. 성인은 많은 지역을 두루 다니다가 데살로니카의 성 미나스 수도원에 정착하였습니다. 성인은 글쓰기에 전념하다가 816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중병으로 안식하였습니다.

일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낱알을 얻어먹으리라.”(창세기3:19)라고 말씀했을 때 일은 하느님께서 내리신 하나의 저주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첫 창조물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니”(창세기2:15)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즉, 일은 본래 주어진 계명이고,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창조물들의 타락과 창조주에 대한 그들의 반항 이후, 일은 수고와 땀과 결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태어나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정직한 일은 다시 위대한 축복이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됩니다.

반대로 일이 불법적이고, 부정직하며, 폭리를 추구하면 당연히 사람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다르게 설명하자면, 각각의 정직한 일들은 축복된 것이고, 어떠한 일도 멸시 받지 않습니다. “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게으름이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옛 속담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의합시다. :

1. 일은 우리가 창조적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재능과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욱 가치 있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젊은이뿐만 아니라 노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도 항상 무언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

을 안 하는 것은 사람을 나태함과 무기력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2. 우리는 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합니다. 우리는 일을 생계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친절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가갈 때, 우리는 사람들을 친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을 베풀 준비를 합니다.

3. 과학을 연구하는 일은 먼 세상인 우주와 작은 세상인 사람의 창조의 기적들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당신의 기적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완벽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사람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할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이 지루하고, 힘들고,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자신이 하는 어떠한 일이라도 의미를 둔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반대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살고 있는 사람은 가장 신성한 일의 의미도 없애 버립니다.

성 대 바실리오스께서 기술하고 있듯이 “하느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느님께 간청하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하느님은 당신의 성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성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마리아 루바니 여사가 말하길, 몇 년 전에 성 다비드 수도원(그리스 에비아섬)의 수도원장이신 끼틸로스 신부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끼틸로스 수도원장님은 야고보스 (찰리키스) 성인 (1920-1992)의 영적 자녀들인 몇몇 판사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바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 성인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또한 성인이 안식한 뒤에도 언제나 성인의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끼틸로스 수도원장님은 특별히 다음의 한 사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은 여러 판사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판사는 매우 어렵고 ‘혼란스러운’ 한 사건을 심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느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당혹스러운 사건에 대해 야고보스 성인이 도와주시길 간청하였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날 저녁까지 그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를 어렵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누가 죄인이고, 누가 결백한가?’ ‘만일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만일 거짓 증인들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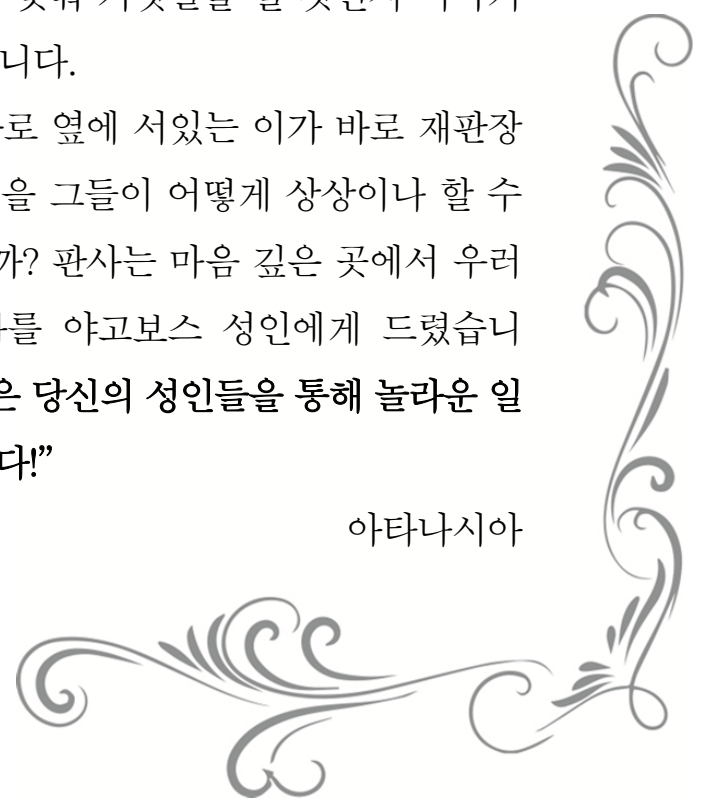
그는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야고보스 성인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재판이 있던 날, 그는 자신의 차로 법정에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웬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차가 고



장이 나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그는 택시를 타려고 하였으나 택시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버스에 탄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버스가 제 시간에 법원에 닿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류장에서 5-6명의 사람들이 탔으며, 자리가 없어 앉지 못한 그들은 판사 옆에 서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였고, 본의 아니게 판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 사건의 증인들이었으며, 법정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재판을 오도(誤導)하기 위해 어떻게 입을 맞춰 거짓말을 할 것인지 이야기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들 바로 옆에 서있는 이가 바로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판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야고보스 성인에게 드렸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성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타나시아



주보 소식

대교구

■ 성탄 대림절 시작

내일 11월 15일(월)부터 성탄절을 준비하는 '성탄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은 아래와 같은 금식 기간이므로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여 세상 구원을 위해 오시는 구세주, 우리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축일표에 따라:

- 11월 15일~12월 17일 : 생선은 허용되며 육류는 금합니다.(단, 수, 금요일엔 육류는 물론 생선류도 모두 금합니다.)

- 12월 18일~12월 24일 : 엄격한 금식으로 육류와 생선류 모두 금합니다.

■ 코로나 시대에 영적 신앙생활 참여

코로나19 전염병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의 시련을 또한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성당에서 실시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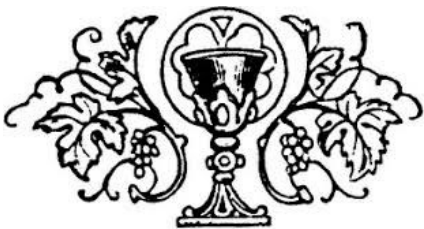
는 온라인을 통한 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교회 유튜브 채널에 매주 월요일 업로드되는 성서공부, 금요일 저녁 9시에 있는 장년회, 성인 신자분들의 줌 모임, 토요일 저녁 8시에 있는 주일학교 줌 모임, 일요일 오후 1시에 있는 신데즈모스와 예비신자 줌 모임에 참여하여 우리들의 영적 신앙생활에 유익한 영적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주일 성찬예배에 대면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신자 분들은 한국정교회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되는 성찬예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신데즈모스 봉사활동

지난 주일 성찬예배 후 서울 신데즈모스 회원들은 성당 마당과 주변을 청소하였습니다. 낙엽을 모았고 잡풀들을 제거하였습니다. 봉사해주신 모든 신데즈모스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주간예식



11월 16일(화) 성 마태오 복음사도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

